

2023년 국내외 바이오제약기업 VC 투자 현황 및 전망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글로벌 시장데이터 업체인 PitchBook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은 바이오제약사의 IPO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금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다고 밝힘

- 최근 PitchBook은 바이오제약 VC 동향 및 기회 보고서를 통해, 2023년 말까지 바이오제약기업들은 약 840건의 거래를 통해 240억 달러를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2022년 대비 129억 달러가 감소한 수치임.

* 2020년 381억 달러 → 2021년 539억 달러 → 2022년 369억 달러 → 2023년 240억 달러

- 또한, 2023년 말까지 IPO 55건, M&A 29건 등 총 84건 179억 달러 규모의 투자회수(출구 활동)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77건(IPO 45, M&A 32) 234억 달러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1년 총 199건(IPO 154, M&A 45) 864억 달러를 조달한 것과 비교해도 큰 감소임.

- M&A 건수는 2021년 45건에서 2022년 32건, 2023년 2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특히, IPO 시장에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 IPO 건수는 2021년 154건에서 2022년 45건으로 71% 급감했고, 2023년에도 55건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올해 엑셀러린(Acelyrin)의 5억 4천만 달러, 레이즈바이오(RayzeBio)의 3억 1천1백만 달러 공모 등으로 IPO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였으나, IPO의 시장 침체는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2023년 바이오제약사의 투자전략변화는 소수의 기업에 큰 규모로 신중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혁신 가능성을 보는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이러한 바이오제약 투자 동향은 기존 포트폴리오에 대한 준비금 강화, IPO 타이밍 최적화, 새로운 펀드조성을 위한 출구전략 강구, 스타트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침체 대응 등 다양한 투자전략이 반영된 것임.

- 임상단계에 대한 투자 동향을 보면, 2020년과 2021년은 임상1상을 시작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으나, 2022년에는 하락하고 2023년에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음. 이러한 변화는 자본에 대한 가용성과 특히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등과 같은 신규 모달리티 투자리스크에 대한 욕구와 같은 다이나믹한 투자환경에 기인함.

□ 2023년 국내 바이오 분야 투자 및 특례상장 또한 계속 위축

- 국내 바이오기업 기술특례상장 건수가 감소하면서 투자 회수가 어려워져 VC 투자도 두드러지게 축소되는 중임. 2019년 14개, 2020년 17개, 2021년 9개, 2022년 9개였으며, 2023년 3분기까지 10개로 올해에도 코로나19 이전 건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의료 분야 VC 신규 투자는 2019년 1조 1033억원, 2020년 1조 1970억원, 2021년 1조 677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조 1058억원으로 감소. 2023년의 경우 3분기까지 누적 바이오의료 분야 VC 신규 투자는 6264억원으로 전년 동기 8787억원 대비 28.7% 감소하였음.

ISSUE 

Briefing 2023.12.22.(금)

<참고자료>

1. Launch Report: Biopharma, PitchBook, 2023.12.6.
2. 바이오 산업 민간 투자 생태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데일리파트너스 이승호 대표, BIOIN, 2023.12
3. 2023년 3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3.10.31